질병관리본부소식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News Letter
2008년 7월호

우리는 지금

국민건강영양조사 – 이동검진차량 도입 –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금년 7월 8일부터 이동검진차량(4대)을 도입하여 전국 4개 권역(1권역 : 서울, 경기, 강원/2권역 : 서울, 경기 남부, 충북/3권역 : 충남, 전라도, 제주도/4권역 : 경상도)으로 나누어 배치 운영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그동안 읍 · 면 동사무소 등 공공장소에서 실시해 왔었는데 이동검진차량 도입으로 장비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해 짐에 따라 골다공증, 체지방, 안검사, 이비인후검사, 흉부 X선을 추가하여 58개 검진 항목에서 79개의 조사항목으로 확대하여 운영된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고가의 장비 및 방법으로 인력 훈련 과정을 통한 전문 인력(안과전공의, 이비인후과전공의, 방사선기사)을 투입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질은 물론 조사 참여율('07년 64.8%, '08년 6월 20일 현재 74%) 향상에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개 권역의 표준화된 조사환경은 환경적 측정변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 **주요 검진조사 항목** : 신체계측, 체지방검사, 혈압 및 맥박측정, 구강검사, 안(眼)검사, 골밀도검사, 흉부X–선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폐기능검사, 이 · 비 · 인후검사

♧ **추가 산출지표(약 20여개)** : 시력분포, 안검하수유병률, 사시유병률, 녹내장유병률, 백내장유병률, 폐결핵유병률, 기관지확장 증유병률, 골밀도분포, 골다공증유병률, 체지방량분포, 안면신경마비유병률, 고막이상자유병률,중이염유병률, 만성부비동염유병률, 비중격만곡증유병률, 알레르기성비염유병률, 음성장애유병률, 평형감각이상자유병률, 난청유병률

♧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골다공증, 체지방, 안질환, 이 · 비 · 인후질환, 흉부X–선조사 등 국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이들 질환의 유병수준 및 원인을 규명하여 공중보건학적인 대책 시행 중이며, 미국은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를 통해 1999년부터 골다공증, 안질환, 이 · 비 · 인후질환부터 통계를 생산하여 Healthy People 2010의 목표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목 차

01 우리는 지금
국민건강영양조사 – 이동검진차량 도입 –

03 칭찬은 우리도 춤추게 한다
맨발의 사나이 박준선

04 교육사업소개
예방접종 의료인 교육사업

06 팀소개
검역지원팀

08 여기는 검역소
아름다운 섬 제주의 전염병지킴이 국립제주검역소

10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여름철 식중독 주의 – 살모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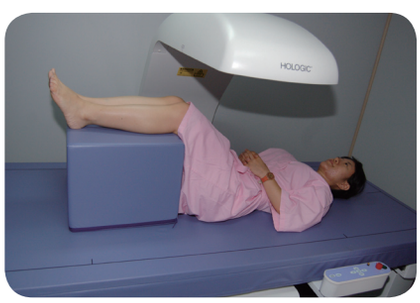
12 주요행사
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 의무참모부와의 협의서 체결
2008년 유엔 에이즈 고위급 회의 (2008 High-level Meeting on AIDS)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포럼

김영택
만성병조사팀
ruyoung@cd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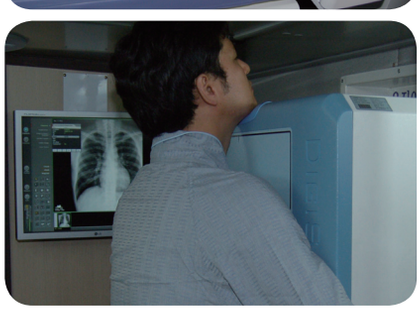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필요한 조사장비 및 인력지원 등으로 매년 20억을 지속적으로 투자 받아 공동 조사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도 2009년 8월 이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통하여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골다공증, 결핵 등의 질병 유병 파악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정책 마련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추진 경과

- ○'08. 01. 08.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년) 실행계획 수립
  - ※ 노인성질환 및 삶의질 관련 질환(안, 이비 인후, 골다공증 등)의 조사항목 추가
- ○'08. 02. 11.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골다공증학회 간 협력협정체결
  - ※ 대한골다공증학회 : 5년간 장비임대를 위해 약 6억 지원
- ○'08. 02. 28. 보건복지가족부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위한 차량 구매 협조 공문
- ○'08. 03. 04.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안과학회 간 협력협정체결
  - ※ 대한안과학회 : 5년간 인력 및 장비임대를 위해 약 28억 지원
- ○'08. 03. 27.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간 협력협정체결
  -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 표준화를 위해 인력 및 장비임대 약 10억 지원
- ○'08. 04. 08.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 공용차량 구매 및 교체승인 통보
- ○'08. 04. 18.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검진차량 임대구매 요청 공문
- ○'08. 04. 22.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이비인후학회 간 협력협정체결
  - ※ 대한이비인후학회 : 5년간 인력 및 장비임대를 위해 약 27억 지원
- ○'08. 04. 22.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간 협력협정체결
  -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5년간 인력 및 장비임대를 위해 약 36억 지원
- ○'08. 05. 1~28. 이동검진 차량 임대 계약을 위해 3회 공모
- ○'08. 05. 31.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검진차량 4대 임대 계약 및 제작
  - ※ 현대캐피탈(주)에서 계약(계약금:1,329,038,400)을 통한 (주)오텍에서 제작
- ○'08. 07. 02.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검진차량 시운전 및 모의조사실시
- ○'08. 07. 04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검진차량 발대식

칭찬은 우리도 춤추게 한다.

박준선
신경계바이러스팀
uavcom@hanmail.net

맨발의 사나이 박준선 - 신경계바이러스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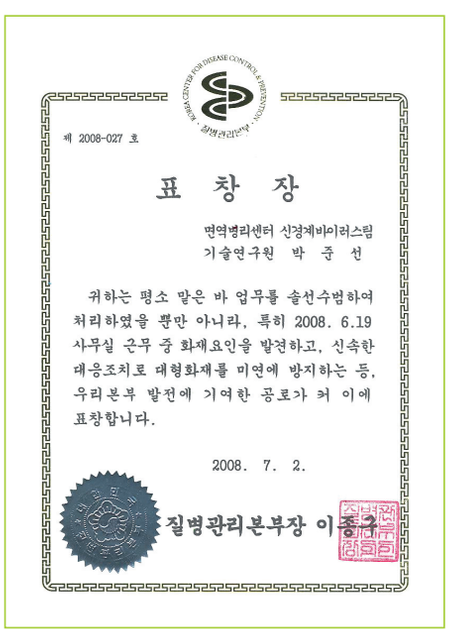


2008년 6월 19일 12시 10분 동료들은 모두 밖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고 나는 오늘도 도시락 다른 연구원과 함께 먹었다. 신발도 벗고 의자도 뒤로 젖히고 쉬는 이시간은 언제나 여유롭다. 어라 ?!! 이때 실험실 창문으로 보이는 불꽃... 맨발로 뛰어가 확인해 보니 천정 에어컨 배선에 불이 붙어있었고 나란히 연결된 노란색 도시가스관이 줌 인되어 보였다. 이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예비군 훈련을 통해 습득한 소화기 분사는 당근이고 (그러나 분말 소화기의 후유증은 아직도 실험실 곳곳에 남아있다). 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전기실과 관리팀 직원들이 오시고 사건은 종료 되었다. 앗!! 이제 보니 난 맨발이었네...

충북대학교에서 생화학(학부), 바이러스학(석사)를 전공하고 2005년 7월 국립보건원 일원이 된 나는 현재 바이러스학과 박사과정 중이다.

현재는 신경계바이러스 팀에서 "공수병진단법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팀 내 가족 같은 분위기와 어우러진 좋은 연구 환경은 개인적인 학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현장 경험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개인연구는 더 활발해지는 것 같다.





제 2008-027 호

표 창 장

면역병리센터 신경계바이러스팀
기술연구원 박 준 선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솔선수범하여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8. 6.19 사무실 근무 중 화재요인을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우리본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이에 표창합니다.

2008. 7. 2.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신경계바이러스 팀에서의 연구경험은 학교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다가 진단법 치료제등의개발로 "국민건강"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사명감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점은 연구원으로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공인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연구자요 학자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교육사업소개

예방접종 의료인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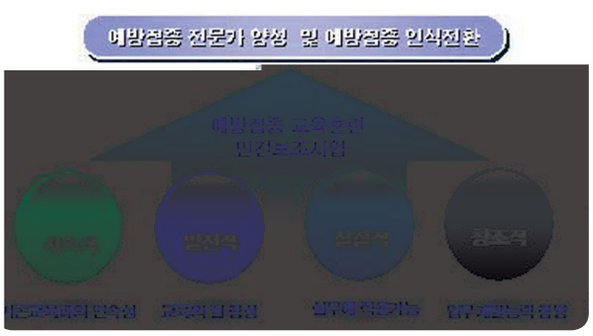
우리 생애 첫 보건의료 서비스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의료서비스는 예방접종일 것이다. B형간염, 결핵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출생 후 1년 내에 받아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0번이 넘는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전염병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평생복지 기반 마련'의 한 일환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예방접종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예방접종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재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접종서비스의 질 개선과 유지 전략이 필요하며, 보장범위 확대를 대비한 보건소 예방접종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의료기관 접종인력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5년과 2006년 의료기관 및 보건소 대상 확대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사업에 대한 설명과 교육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19.8%를 차지하였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개선사항으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서비스 질 강화(15.3%), 전산등록프로그램의 개선과 지원(11.9%), 보건소 주관 보건교육 강화(10.8%) 등을 응답하였다. 또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05, '06년 각각 87.9%, 95.4%로 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예방접종관리팀*에서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담당 의료인의 국가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접종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예방접종 서비스 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7년부터 「예방접종 교육훈련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시작하였다.

박숙경
예방접종관리팀
monica23@cdc.go.kr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교육사업



민간의료기관 의료인 대상의 국가예방접종 관련 교육을 통해 국가예방접종정책 및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국가표준안을 이해토록 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2008년에는 (1) 2007년 교육사업을 통해 양성된 예방접종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다. (2)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관련분야 학회와 연계하여 *학회 연수교육*시 예방접종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평점을 부여하도록 관련 학회와 협의중이다. (3)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예방접종 온라인교육 컨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대한의사협회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컨텐츠를 지속 제공하고 연수평점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4)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과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NIP 등록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일반인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5) 민간의료계와 공공보건기관의 리더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예방접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현재 예방접종사업과 향후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보건소 예방접종 교육사업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준비된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에 대비하여 민간의료기관을 관리, 교육할 수 있는 일선 보건기관의 관리자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에는 (1) 예방접종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연수평점을 부여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여 추가 교육이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2) 전문능력함양을 위해 2007년 예방접종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사례 위주의 *심화교육*을 실시하며, (3) 예방접종 등록요원들을 대상 *특수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등록관리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4) 또한, *온라인 교육강좌를 개발*하여 보건소 접종담당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를 질병관리본부 교육훈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제공할 계획에 있다.

예방접종은 생애 첫 의료서비스인 동시에, 그 서비스 대상자가 생애 가장어리고, 연약할 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한명 한명의 예방접종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14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예방접종 모두가, 국민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의료인 전문교육과 관련 컨텐츠 개발에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팀소개

검역지원팀

"검역지원팀은 국립검역소 조직보강과 검역장비 현대화, 검역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검역업무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발생전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 제공 및 대국민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검역지원팀은 전국 공항만의 13개 검역소에서 운송수단(선박 · 항공기 · 열차 · 자동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조사, 콜레라 · 황열 예방접종업무,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해외여행자 대상 전염병 예방홍보활동 등의 검역업무를 철저히 수행토록 지원하여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며, 해외발생전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 제공 및 대국민 홍보업무를 통하여 해외여행객 안전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환경생태계 파괴 및 전염병 발생양상의 다양화로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하고, 생물테러의 위협이 있으며, 이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전염병이 재출현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시대는 세계의 거리를 좁히고, 경제성장 및 경제정책의 세계화 등으로 국외여행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교류활성화로 인한 국가간 수출 · 입 물류교역량의 확대로 검역물량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하나의 전염병 발생은 일국에 국한되지 않아 각국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간 인적 · 물적 교역과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전염병의 투입기회와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검역은 국제적으로는 국가 신인도 및 국민보건수준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필요한 중요한 국가관리사업이다.

❖ 전염병 지킴이(파수꾼), 국립검역소

*국립검역소*는 1883년 개항이래 검역의 필요성 대두되어 1886년 인천 · 부산 · 원산 등 3개항에서 검역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1945년에 해 · 공항검역규칙이 공포(1954 검역법 제정)되어 1946~1949년 8개검역소(부산 · 목포 · 인천 · 여수 · 군산 · 마산 · 묵호 · 김포)가 신설되었다. 이후 1958년 제주검역소, 1969~1978년 울산 · 포항 · 충무 · 김해 4개검역소가 신설되어 총 13개 검역소가 되었다. 200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편입되었다.

❖ 건강정보 알림이

국외발생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의 전염병발생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매일 *WHO, Promed-mail* 등을 비롯한 외국의 전염병정보망을 검색하여 전염병발생상황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전염병발생상황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및 국립검역소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과 아울러 필요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국가별 전염병 발생정보를 국민에게



박선희
검역지원팀
sunheep@paran.com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전국 국립검역소, 여행사 및 항공사 등을 통해 해외여행자에 대한 예방 ·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해외여행 도우미, 해 보센터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 는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예정자를 대상으로 여행국별 전염병발생상황 정보제공 및 질병예방요령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 상담을 하고 인천공항 및 김해검역소 민원실내에 오프라인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전염병예방 영상물 방영, 국내외 해외여행 건강정보사이트 제공, 각종 홍보물 및 민원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해외여행객 출입이 많은 검역소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보강하여 해외여행 전부터 여행지에 대하여 질병정보 및 사전예방법을 안내하고,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감염에 대한 예방책을 제공해 주는 여행의학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여행 건강가이드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입국 전 비행기 및 여객선을 통해 방영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검역절차와 전염병예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해외여행시 전염병예방요령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로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검역소, 여권민원실의 여권발급창구 등에 비치하여 해외여행 건강수칙을 가이드 한다. 해외자원봉사단체, 해외선교단체의 해외봉사단파견 교육 등의 단체 혹은 장기 해외여행객들에게 전염병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여기는 검역소

아름다운 섬 제주의 전염병지킴이 국립제주검역소

신비와 전통의 섬,
삼다의 혼이 살아 숨쉬는 "제주"
파도의 힘과 바람의 향기, 땅의 숨결 속에서 이룩한 제주의 문화
그 독특하고 신비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1952년 5월 국립부산검역소 제주지소로 발족하여 1958년 5월 국립제주검역소로 승격되었으며, 1975년 2월 제주국제공항지소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박현자 소장외 12명의 직원이 제주국제공항 및 제주항,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애월항 등 공 · 항만을 넘나들며 검역전염병 등의 국내유입 방지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제주검역소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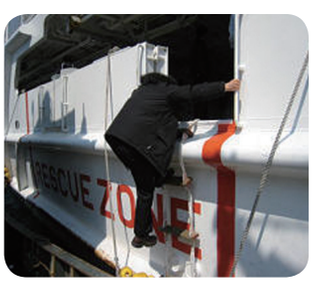
▷ 해외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 ·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
▷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 전염병 예방홍보
▷ 국제공인예방접종 등이 있다.

❖ 제주국제공항 검역업무 현황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과 승무원 전원에 대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오염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한 가검물 채취 및 승객을 통한 검역질문서 추가 징구로 검역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오염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황열 및 콜레라 예방접종과 전염병 예방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항만 검역업무 현황

오염국가로부터 입항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가검물 채취 및 실험실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 밖에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검역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대한 위생지도 점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점검 등 보건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병원체 조사연구사업

▷ 해양환경내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균의 분포실태조사사업

김윤숙
국립제주검역소
wkys1022@hanmail.net





· 제주 해양 환경에 분포하는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균에 대한 조사사업을 질병관리본부 장내세균팀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대국민 건강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모기밀도 조사사업

· 제주항과 제주공항 주변에 서식하는 모기에 대한 서식현황을 수집 · 축적하여 전염병 유행을 예측함으로써 전염병 예방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해외전염병 예방홍보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립제주검역소에서는 전염병 발생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관련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국 · 내외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제공함과 아울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 · 항만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는 홍보자료 배포 등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제주도내 전염병 유입 차단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제주마라톤축제"와 연계하여 손씻기 체험행사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홍보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모의훈련 실시

▷ AI 대유행 대비 제주국제공항 내 합동모의훈련 실시

·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발생시 조기격리 및 후송 등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 생물테러 모의훈련 참가

· 제주방어사령부에서 실시하는 대테러합동훈련에 참가하여 생물테러에 대한 방어작전 계획에 따른 작전절차를 숙달하고 초동대응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 국립제주검역소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검역서비스

▷ 관광가이드를 통한 외국관광객 질병정보모니터제 운영



· 전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질병정보모니터제에 올해부터는 관광가이드 단체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광가이드를 통해 제주를 찾은 외국관광객이 여행기간동안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가이드 신고요령 매뉴얼에 따라 검역소에 즉시 신고하게 함으로써 검역관 실무대응요령에 따라 신속한 초동조치는 물론 병원진료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전염병이 없는 아름다운 관광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여름철 식중독 주의 - *살모넬라*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토마토로 인한 살모넬라 집단식중독은 상한 토마토가 원인일까?
물론 아니다. 싱싱한 토마토가 원인임에 틀림없다.
한국에서는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토마토 식중독사고가 미국에서는 적어도 9건에 1,61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미국 식약청은 2008년 6월 3일 FDA 뉴스를 통하여 뉴멕시코와 텍사스주의 소비자들에게 날 토마토의 취식금지를 당부했다. 집단 발병에 대한 역학적 분석은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원인병원체는 *Salmonella Saintpaul*(살모넬라 세인트폴)이란 혈청형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미국 및 한국 내에서도 흔하게 분리되지 않는 혈청형 중에 하나이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원인병원체로 알려져 있으며, 식중독의 유행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체이다. 일반적으로 살모넬라균의 주 전염원은 오염된 물이나 육류, 가공하지 않은 우유나 날계란 또는 파충류와 조류로 알려져 있다.

조리를 하지 않고 섭취를 하는 야채류, 특히 토마토를 통한 살모넬라균의 전파 –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번 미국의 소식은 일반인들에겐 적잖은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살모넬라균은 그람 음성균으로 2007년도 말 기준으로 2,579가지의 혈청형이 알려져 있다. 살모넬라균은 숙주 특이성을 가지는 세균으로서 사람에게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질병을 일으키는 *Salmonella Typhi, Salmonella Paratyphi A,B,C*가 있으며, *Salmonella Gallinarum, Salmonella Pullorum*는 닭에서 감수성이 있어 질병을 일으킨다.

*사람과 동물에 공통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Enteritidis균 등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혈청형*으로, WHO에서는 전 세계적인 실험실감시망(WHO Global Salm-Surv)을 운영하여 살모넬라균 혈청형들에 대한 확인 감시를 하고 있다.

이덕용
장내세균팀
holoin@korea.com

우리나라에서 주로 분리되는 혈청형은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yphi*, *Salmonella Infantis*, *Salmonella Braenderup*, *Salmonella London*, 그리고 *Salmonella Montevideo*등이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임상증상은 혈청형마다 차이가 있지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혈청형에 의한 증상으로는 감염 후 12시간에서 72시간 후에 복통, 설사, 발열 등을 일으키다가 5일 내지 7일 후에 별도의 치료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간혹 유아와 노약자는 전신감염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적절한 항생제 투여로 치료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례 중 살모넬라균이 원인병원체로서 알려진 경우는 약 8% 내외*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평균 22건 내외의 발생건수를 보였고, 500명에서 800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발생하였다. 2007년에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사례가 급증하여 총 42건이 발생하였고, 1,497명의 환자 및 감염증이 확인되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한 식품회사의 냉동파이(pot pie)를 통해 전 미국으로 살모넬라균이 전파된 사례가 있었으며, 원인체로 알려진 혈청형은 *Salmonella I* 4,[5],12:i:-이었다. 이 혈청형은 1990년대 말에 알려진 이후 지난 2006년도에는 미국에서 6번째로 많이 분리된 균주로 등록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분리가 되고 있다.



*살모넬라균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의 식탁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도 새로운 방법으로 살모넬라균의 공격에 대응해야겠지만, '손 씻기'등의 개인위생, '음식물은 충분히 조리하여 먹기', '야채류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하기'등의 식품위생 관리는 고전적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에서 토마토를 먹고 살모넬라균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 토마토 6건과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 21건(토마토 함유 식품 3건 포함) 총 27건을 수거하여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월 19일 보도)

박미정
전염병관리팀
apotre@hanmail.net

주요행사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 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 의무참모부와의 협의서 체결

지난 6월 9일 용산 미군기지 121병원에서 양 기관의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합의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 의무참모부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신종 및 재출현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 증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종 및 재출현전염병과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매개체감염질환, 생물테러,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되며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말라리아 등에도 적절한 대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2008년 유엔 에이즈 고위급 회의 (2008 High-level Meeting on AIDS)

지난 6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3일동안 HIV/AIDS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이번 회의에 참석하였다. 기조발언을 통해 국내의 감염현황, 에이즈정책과 국제협력 현황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HIV/AIDS 퇴치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2001년 및 2006년 HIV/AIDS 퇴치 회의에 이어 지금까지의 진전을 점검하고 정치적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회의로써 반기문 사무총장과 스르드얀 케림(Srgjan Kerim) 총회의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150여개 참가국의 대표단은 활발한 기조발언을 통해 HIV/AIDS 퇴치를 위한 기존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을 다짐하였고 예정일 보다 하루 연장되었다.

금번 회의를 통해 HIV/AIDS는 단순히 질병 차원이 아니라 인권문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 달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저해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생물안전평가팀은 한국바이오산업협회 및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위한 국제심포지엄(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Biosafety & Biosecurity)"을 7월 10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캐나다 · 일본 · 미국 정부 및 국내 생물안전전문가와 기업체등 관계자 등이 참여해 나라별 생물안전, 생물보안 및 생물안전연구시설 국가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한다.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포럼

혈액안전감시팀은 대한수혈학회와 공동으로 7월 15일(화) 13시 ~ 17시 30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전문가 토론이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가 주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수혈학회가 후원한다.

ISSN 1976-7579
9 771976 757007 07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발 행 일 : 2008. 7월(통권 제8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박숙경, 배송미, 양은주, 이혜자, 최우영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